레 위 기 Leviticus

1. 핵심

레위기 27장을 네 단어로 요약해보자

(5제사1-7장**) - (아론**8-10장**) - (정결법**11-22장**) - (7절기**23-27장**)**

2. 배경

레위기는 '제사'의 책이다! 창세기가 '시작'이고 출애굽기가 '구원'이라면, 레위기는 '제사(예배)'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으로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백성들은 5가지 제사를 통해 언제든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을 수 있었다.
오늘날 레위기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는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그리스도의 속죄와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예수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제사의 모든 요구들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충족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구약의 제사는 그 자체로 당시에 의미가 있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을 극복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7가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이다! 모든 제사와 정결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한다. 그때 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칭의), 여전히 거룩한 산제사의 삶(성화)을 살아야함을 교훈한다.

→ 성막 내부지도(**외소**|| 제단, 물두멍, **성소**|| 떡상, 등잔대, 분향단, **지성소**|| 언약궤)

3. 개요

- **1-7장** **5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 **8-10장** **아론**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
- **11-22장** **정결법** (정결규례. 속죄일. 성결법전)
- **23-27장** **7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4. 본문

1) 5제사(1-17장)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은 제사를 통해서만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5가지 제사의 기본 의미는 속죄(expiation)와 헌신(consecration)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 위에 안수함으로 자기 죄를 전가하거나 자신을 제물과 동일시하였다. 그리고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신분이나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그 제물의 종류를 다르게 책정하셨다(소, 양, 염소, 새).)

번제(1장; 6:8-13)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1:3). 번제는 일반적인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함이다. 번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 소(3-9절), 양과 염소(10-13절), 새의 종류(14-17절)로 구분되었다. 번제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을 예표한다. [히 10:5-7; 롬 12:1]

소제(2장; 6:14-23)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2:1).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곡식 제사로 역시 헌신의 의미가 있다. 고운가루에 기름을 붓고 소금을 치되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제사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식물을 주신 것과 생명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화목제(3장; 7:21)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3:1).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함께 나누는 화평과 친교의 제사다. 이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제물을 먹도록 제정되었다.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고(7:12-18), 제물은 소, 양, 염소 중 어느 것이나 드릴 수 있었다(3:1-17).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신 희생에 근거한다. [롬 3:25; 고후 5:18; 골 1:20]

속죄제(4:1-5:13; 6:24-30)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4:13-14). 속죄제는 인간이 율법을 범한 경우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다. 이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 드리는 제물에 차이를 가져왔다.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평민의 순서로 차등이 있다(4:3-35). 이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예표한다.
[고후 5:21; 갈 3:13; 히 5:3]

속건제(5:14-6:7; 7:1-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5:14-15).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이나 이웃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했을 경우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사와 함께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는 제사다. 이는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죄의 댓가를 지불할 수 없는 불쌍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고 이사야는 기록한다(사 53:10).

[참고]
제사의 방법에 따른 제사 분류법 : 화제(불). 요제(흔듬). 거제(쳐듬). 전제(부음)

2) 아론(8-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8:1-3). 구약에서 참된 제사는 세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야 했다. 그것은 성전(구별된 장소), 제사장(집례자), 제물(흠없는 예물)이다.

이제 8장부터는 제사를 드릴 제사장의 규례를 기록한다. 8장은 모세가 칠일동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한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속옷, 겉옷, 에봇, 띠. 판결흉패(우림과 둠밈), 관, 패(여호와께 성결)로 이루어졌다. 9장에서는 아론이 대제사장에 취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첫 제사를 드리고 축복한다.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다가 죽고, 아론의 다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다. 후반부에서는 제사장들이 지켜야할 규례와 속죄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소개된다. 특별히 10:10-11에서는 제사장 사역의 본질을 제시한다(성속의 분별과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는 일).

3) 정결법(11-22장)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11:45). 레위기의 3번째 단락(11-22장)은 정결법을 다룬다. 이는 율법의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로 제의적인 정결(cultic purity)이다 본 단락은 크게 정결규례, 속죄일, 성결법전으로 나눌 수 있다.

11-15장까지는 정결규례(음식법, 출산법, 피부병(한센병), 유출병)를 다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기에 이스라엘 진영은 정결성이 보존되어야 했다. 16장은 일년 중 가장 중요한 날로 온 백성이 안식하며 금식해야 할 대속죄일을 다룬다. 17장은 희생제물을 성막에서 잡아야하는 규례, 18장은 세속(애굽과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경고, 19장은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의무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 20장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들, 21-22장은 제사장과

성물에 대한 규례를 다룬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들 자신의 몸과 영혼뿐 아니라 일상의 삶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방식을 요구하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된 삶을 요구하신다.

4) 7절기(23-27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일상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할까? 그들은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도록 구별되었다.
7절기의 구별된 삶은 안식일에서부터 출발한다. **안식일**(23:3)은 육체의 휴식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나아가 이 날은 안식의 주인되신 그리스도(마 12:8) 안에서 죄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새 창조(구원)를 기념하는 날이다. 그 기원은 7일째 안식일 창조(2:1-3)와 십계명(출 20:8-11)에 나타나있다.

유월절(23:4-5)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흗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23:4-5). 유월절은 출애굽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다(1월 14일). 이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분의 사역에 대한 예표다. [고전 5:6-8]

무교절(23:6-8)
"이 달 열 닷샛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레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23:6). 무교절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 다음날부터 7일 동안(1월 15일-21일) 무교병을 먹는 절기이다. 이는 묵은 누룩을 버리고 성도의 구별된 새 삶에 대한 교훈이다. [고전 5:6-8]

초실절(23:9-14)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23:10). 초실절은 무교절 안식일 다음날 행해지는 첫 이삭 단을 드리는 축제다. 이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장차 강림 때 부활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예표다.
[고전 15:20-23]

오순절(23:15-22)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 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23:16).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에 모맥의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다(칠칠절=맥추절). 이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강림으로 세워질 교회의 탄생과 추수를 예표한다. [행 2:1-4]

나팔절(23:23-25)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23:24). 매년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 신년을 알리며 조만간 다가올 대속죄일을 준비케하는 절기다. 이는 현재 영적인 삶에 대한 경고음이며 장차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예표다. [살전 4:16]

속죄일(23:26-32)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23:27).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삶속에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국가와 민족 전체를 정기적으로 정결한 상태를 회복시키는 일은 필수였다. 이것은 속죄일(the Day of Atonement)을 통한 공동체적 회개와 죄사함이라는 수단으로 가능하였다(레 16장). 이는 궁극적으로 신약에 오실 대제사장 이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를 예표한다. [히 7:27]

장막절(23:33-44)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샛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23:34). 장막절(7월 15일부터 7일간)은 출애굽 후에 광야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년중 마지막 절기다(초막절=수장절). 이는 과거 광야 40년의 장막생활과 친히 임마누엘의 장막(임재: 계 21:3)이 되심을 감사하는 절기다.

기타 율법조례(24-27장)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25:4). 24장은 성소 관리에 대한 규례, 여호와 모독법, 동해보복법을 다룬다. 25장은 안식년과 희년, 26장은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 마지막 27장은 하나님께 대한 각종 예물들에 대한 규례를 다룬다.

5. 레위기의 묵상과 질문(Q & A)

1) 레위기는 '제사'의 책이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모든 제사제도와 율법은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마 5:17-18).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의 목표와 그 실체는 유월절의 희생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골 2:16-17).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나 짐승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는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Once for All)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히 10:10-12).

이제 더 이상 '구약적 제사'가 아니라 '신약의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축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형식과 율법이 아닌 찬미와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산 예배중에 당신은 서 있는가? [요4:24; 롬12:1-2]

2)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다.

거룩에 대한 강조는 "나는 여호와니라"(18:2; 5-6, 21, 30; 19:2-4, 10, 12, 14, 16, 18, 26, 28, 30-31)의 구절 속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인간의 성품이나 행동이 거룩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행동을 반영해야 한다. 그분은 거룩의 기준(창조주로서의 초월성/도덕적 완전성)이시며 다른 모든 것은 이 기준에 의해 측정된다. 나아가 이 거룩은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윤리적 원리와 실천을 통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고 말 할 수 있다. 거룩의 기준을 나 스스로 낮추어 버리지는 않았는가?

3) 나에게(구약연구반 겨성연 사역자들) **주시는 교훈과 적용 한가지를 나누어 보자**(숙제)